

도시재생 정책 동향

Urban Regeneration Trends



기사 클릭 시 해당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026년 제2차 학교복합시설사업 공모 실시

교육부 | 2026. 6. 30.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6월 30일(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2026년 제2차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을 공고한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교육청-학교-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학교 또는 폐교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교육·체육·문화·복지·평생교육 용도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국가균형성장,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수단으로서 공공투자 성과와 과제

국토연구원 | 2026. 6. 30.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공공투자는 과거 대규모 토목사업 중심에서 주민 밀착형으로 성공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어냈다. 이러한 공공투자가 일회성 건설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생활여건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 첫째,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의 고도화, 둘째,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데이터 기반의 성과 평가이다.



충남 도시재생 소식

충남도,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3곳 전부 선정'

충청남도 | 2026. 7. 1.

충남도는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사업'에 신청한 2개 시군 3곳의 대상지가 모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대상지로 천안시 성정지구와 예산군 산성지구를 선정했으며, 인정사업 대상지로 천안시 문성동을 선정했다.

천안시 성정·문성동 '국토부 공모 동시 선정'

천안시 | 2026. 7. 1.

충남 천안시가 성정동과 문성동 등 원도심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도시재생사업을 본격화한다. 1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에서 성정지구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문성동이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각각 최종 선정됐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도로와 주차장 등 필수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프로젝트다.

아산시, 온양 6동 온주마을 우리동네살리기 공모 선정

아산시 | 2026. 7. 5.

충남도는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사업'에 신청한 2개 시군 3곳의 대상지가 모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대상지로 천안시 성정지구와 예산군 산성지구를 선정했으며, 인정사업 대상지로 천안시 문성동을 선정했다.

